

10일간 추석 황금연휴의 ‘그늘’... 소상공인들 긴~ ‘한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9/24	25	26	27	28	29	30
10/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중소기업 직원들

납품기한 맞추느라 쉬지도 못할판
생산차질에 직원 월급 마련 걱정
상대적 박탈감 해소 상생문화 시급

올해 추석 최장 열흘의 황금연휴에 지역 중소기업과 일부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모처럼 찾아온 여유지만 최장 연휴에 따른 생산감소와 부대비용 증가, 상대적 박탈감 등이 기폭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에 악재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납품 기한 맞추느라”...친다는 것은 호사=지역 중소기업 직원은 연휴나 휴일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쉬더라도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역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업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주문한 부품 등의 납품기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연휴에도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5월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체 25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연휴 휴무 계획이 없는 중소기업은 ‘납품기일 준수’(33.3%)와 ‘일시가동 중단으로 인한 생산량·매출액의 큰 타격’(29.2%) 때문에 휴무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연휴 시작 한 달여 전에 임시공휴일을 확정하고 휴무를 권장하고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 직원들은 납품기일 맞추기에 대한 부담감과 휴무에 따른 손실을 감당하기 힘든 구조 때문에 연휴를 온전하게 즐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또 이에따른 중소기업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걱정이다.

추문감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은 “중소기업 직원은 대기업보다 적은 임금 뿐만 아니라 휴식 등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면서 “이번 연휴에는 대기업도 협력 중소기업에 납기일 등을 배려해 중소기업 직원들이 쉬 수 있도록 상생 문화를 만

드는 데 앞장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생산 차질에 손실 커”...한 달 월급 마련도 걱정=지역 대부분의 소규모 기업들은 모처럼 찾아온 연휴를 온전하게 즐기지 못하고 장기 휴무에 따른 생산 손실을 감당해야하는 이중의 고통을 감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징검다리 연휴가 있었던 지난 5월 상당수 대기업 직원은 거의 일주일에 가까운 연휴를 즐겼지만, 중소기업 직원들은 대기업의 납품기일을 지켜야 해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와 함께 긴 추석 연휴에 따라 애꿎은 생산과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내수 진작책이 되려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저효과와 추석연휴에 따른 근로일수 축소 등으로 4분기에는 국내 수출 증가율이 한자릿수에 그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대기업 납품이 많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체일수록 장기 휴무에 따른 손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에도 장기 휴무에 따라 일주일간 공장을 멈췄다는 지역 중소기업 업체 임원은 “특근에 따른 추가 비용을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공장 가동을 못 해 입은 손실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경기 활성화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환영하지만 납기 지연이나 매출 감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지역 기업들은 조업일수가 줄어 생산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탄력적으로 생산량을 조정해 물량을 확보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재래시장의 추석 올해 추석 최장 열흘의 황금연휴에 지역 중소기업과 일부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최장 휴가에 따른 생산감소와 부대비용 증가가 기폭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에 악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추석을 앞두고 신선식품 등의 물가가 치솟아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와 국민의당이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서울에서 열렸던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 모습. <광주시 제공>

SOC 예산 삭감에 국비 확보 정책협의회 난항

광주시·국민의당 ‘협치’로 풀어나가

광주시와 국민의당 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리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내년 SOC 예산 일괄 삭감’ 방침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호남 몫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시가 의지 할 것은 국회에서 증액을 하는 방법뿐이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오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국비사업 20건, 지역 현안 8건, 공약 세부과제 28건을 건의하고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남도 역시 사정은 비슷해 오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오는 10월엔 국민의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에서 반영하지 않거나 삭감된 내년 예산을 국회에서 되살리기 위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왔다따위 주요 정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지자체가 여러 현안 사업 중 우선 순위 사업을 설명하고, 한 톨의 예산이라도 더 받기 위해 정당에 지원을 요청하는 중요한 자리다.

하지만 광주시와 국민의당 간 예산정책협의회는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개최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난 7월 한차례 서울에서 국민의당과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 내년 예산 확보를 건의했다”며 “지난달엔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했는데 국민의당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시당위원장 교체와 사무처장 공

석에 따라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주시와 국민의당이 자연스럽게 만나 내년 예산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았다는 데도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근 3일 동안 광주에 머물며 지난 8일 광주시청 인근 광주시의회에서 김동철 원내 대표,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현장 최고회의’를 열었지만 이 자리에서도 광주시 집행부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일은 광주 지역구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다 하는데도 막상 광주시는 집권당인 민주당 위주로 모든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광주시가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8석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 우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에 대해 ‘당적 민주당인 윤장현 시장’의 광주시와 국민의당 간 ‘불편한 동거’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실질적인 국회 예산 증액작업을 해야 하는 ‘지역구 다수당’인 국민의당과 ‘집권당’인 민주당 사이에서 우려가 깊다. 광주시가 내년 국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광주시의 예산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광주시와 국민의당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타는 것도 즐겁지만 사는 건 더 즐겁다!

RV 보유고객 (5만명) 신규사업자 (1만명) **100** (최대) 만원 지원

9월이 아니면 만나볼 수 없는 코란도의 다양한 혜택을 지금 잡으세요!

편안한 즐거움 KORANDO C

- 5년/10만Km 무상보증
- 8인치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장착 (or 30만원 D.C)
- 한가위 귀성비 지원 100만원 (현금 일시불 시)

함께하는 즐거움 KORANDO TURISMO

- 4WD 시스템 장착 50% 지원 (현금 일시불 시)
- 1-2-3 Choice 자리할부
- 선수율 Zero 1% 저리 (36개월) / 선수율 Zero 2% 저리 (48개월) / 선수율 Zero 3% 저리 (60개월)

익사이팅한 즐거움 KORANDO SPORTS

- 8인치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장착 (or 30만원 D.C)
- 10년 자동차체 28만 5천원 지원

쌍용자동차 대리점이 참신하고 유능한 영업인력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아래 해당 판매점에 연락 바랍니다.

광주권 광주중앙 529-0003 전남권 (061) 순천중앙 723-7100 장흥 863-2600 완도 554-4545 여수구룡 642-1400	서광주 목포중앙 277-8000 나주 334-2727 영광 353-9500 함평 324-3800	광주광산 952-3330 순천 745-3666 영암 473-3456 보성 852-2892	광주첨단 971-0990 여수 683-1800 강진 433-3100 서광양 761-8900	광주빛고을 655-4001 목포하당 285-7576 해남 537-3100 무안 454-0099	광주백운 233-2311 광양 791-0071 성서 395-0007 흥고 835-5050	광주양산 573-8900 화순 371-3555 담양 383-5811 진도 542-5888
---	--	--	---	---	--	--